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⑧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3)- 법당·승당·고원(庫院)

선정·지혜 정혜쌍수로 나아가다

법당(法堂)

법당은 선종사원의 주지(방장)가 정법을 설하는 곳으로, 승당(僧堂, 禪堂)과 함께 총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당우이다.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하지만 법당이 더 중요하다.

송대 대혜선사(1089-1163)에 의하여 화두참구의 간화선이 생기기 전까지 선원의 공부법은 주로 주지의 법문을 참구했다. 주지의 설법을 듣고 좌선당에서 그것을 사유했는데, 법문 속에는 '구자무불성화(拘子無佛性話)'를 비롯한 많은 고칙(古則)과 공안이 등장했다. 또 공안에 대한 방장의 작어(着語, 頌語), 촌평(頌)은 살아있는 활구법문인 동시에 현성공안(現成公案)이었다. 사유는 물론 직관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법당(설법당)은 설법을 통하여 수행자들에게 정법의 안목과 지혜를 정립시키는 공간이다. 차별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일원적인 사공, 곧 공(空)·불이(不二)·일여(一如)의 입장에 설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선당은 좌선을 통하여 그것을 체득, 체화시키는 공간이다.

선종사원의 당우 가운데 가장 핵심인 두 당우의 의미를 해아려 본다면, 법당은 설법을 통해서 지혜를 증장시키는 곳이고, 승당(좌선당)은 사유를 통해서 선정(禪定)을 닦는 곳이다. 곧 보조국사(1158-1210)가 강조했던 정혜쌍수(定慧雙修)로서 이것이 중국 선불교의 공부 방법이었다. 따라서 선종사찰의 가람 구성은 이와 같이 철저한 수행체계 아래에서 구성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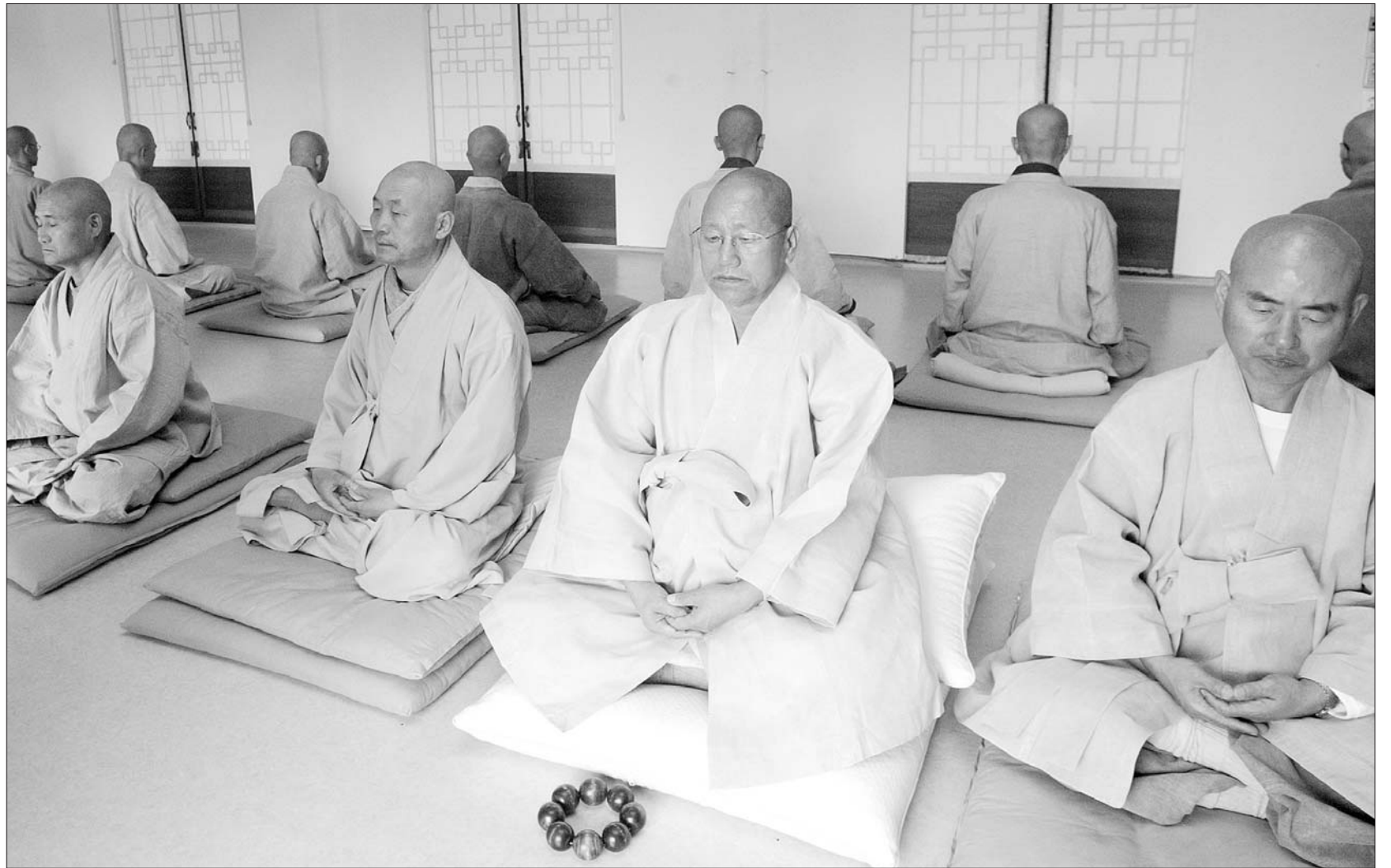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선원에는 설법당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상담법이나 소참법문이 없다. 좌선당 중시하고 지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큰 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지혜작용은 없고 부처

법당을 2층으로 지었는데 위층은 소참법문이나 접견실로 쓰다가 후대에 와서는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 되었다.

장로종색 선사(가)가 편찬한 <선원정규>에는 '조참석취(朝參夕聚)'라는 말이 종종 나온다. 아침에는 조참법문(朝參法門)을 듣고, 저녁에는 만참법문(晚參, 夕聚)을 들었다는 뜻인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선종사찰의 대중들은 하루 두 번 조석으로 모여 주지의 법문을 들었다. 따라서 주지는 선지(禪旨)도 밝아야 하지만 교학적으로도 박학다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방장의 법문은 곧 불언(佛言)으로 선수행자들에게는 지표였다.

법당을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전(불전)과 혼칭한다. 오히려 대웅전보다는 법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대웅전 혹은 불전을 법당이라고 잘못 부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13개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어 선종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대웅전에서 설법을 하게 되면서 혼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당과 대웅전은 의미와 역할이 전혀 다르고 인도, 중국불교에서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혼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당의 편역명은 사찰에 따라서 다른데 정지하게 '법당(法堂)'이라고 쓰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대각당(大覺堂)·무외당(無畏堂)·선법당(善法堂)·무설당(無說堂)·장광설(長廣舌)이라고 쓰는 곳도 있다. 의미상에서 다양하게 쓴 것인데 대각당·무외당·선법당은 평범한데, 장광설(長廣舌)과 무설당(無說堂)은 의미도 특이하지만 대칭되는 명칭이다. 장광설은 매우 해학적인 명칭이고 무설당은 매우 선적(禪的)인데 이 3자 속에는 '무설무문(無說無聞)이 진



법당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곳이고, 승당(좌선당)은 선정을 닦는 곳이다. 사진은 2008년 동화사 금당선원 하안거 결제한 스님들이 좌선하는 모습.

법당이 가람의 중심 그 다음이 선당

<法堂>

<禪堂>

당은 곧 입적할 것을 예고하는 약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동시에 수행자들을 위한 선사의 마지막 설법이었다.

승당(僧堂)

승당은 선승들이 좌선, 참선하는 공간으로서 가람 배치도를 놓고 보면 불전 좌측에 있다. 선당(禪堂)·좌선당·운당(雲堂)·선불장(選佛場)이라고도 하는데, 승당에서는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양·취침 등도 모두 여기서 해결한다. 따라서 승당은 수행자들의 생활공간 겸 수행공간이다. 선원의 7당가람 가운데서 규모면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남송시대 5산10찰도를 보면 광지정각 선사가 주석했던 천동사 대승당은 약 3000㎡(890평)로서 조계사 법당(514㎡, 155.7평)의 약 6배나 된다. 한 승당이 이렇게 컸으니, 천 명의 대중이 살았다는 말은 과장도 아니었다. 승당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 회(연재 3회)에서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고원(庫院)

고원은 주방과 창고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당우인데, 고리(庫裏)·고당(庫堂)·고주(庫廚)라고 하며, 7당가람 가운데 하나로서 위치는 불전 우측에 있다. 고원 앞에는 운판(雲版)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세 번 치면 공양을 알리는 소리이다. 모든 수행자들은 이 운판소리와 함께 방선(放禪, 좌선)을 마치고 공양할 채비를 한다.

고원을 향적주(香積廚)·향적당(一堂)·향적실(一室)이라고도 한다. 5산 가운데 하나인 향주 영은사가 가람배치도에는 '고당'이라고 표기해 놓고 또 옆에 '향적주(一廚)'라고 쓰고 있다. '향적' '향적주'라는 말은 <유마경> 향적품에 나오는 말로서 '향반(香飯)' 즉 향기 가득한 음식을 가리킨다. 이것이 사찰의 부엌(주방)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주방·음식을 만드는 의미에서는 향적주(香積廚)·향적당(一堂)이 더 어울리는 이름이다.

스토리. 유마경사와 문수보살 사이에 벌어진 사상 조유의 법담을 듣기 위하여 유마경사의 처소에는 수만 명의 대중들이 모여들었다. 이윽고 공양 때가 되자 사리불은 내심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 이 많은 대중들의 점심 공양을 어찌할까" 하고 걱정하였다. 사리불의 걱정을 눈치 챈 유마경사는 "법문을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을 걱정하시다니요" 하고는 이윽고 신통력으로 향적 부처님이 계시는 향적국(一國)을 보여 주었다. 그곳에는 갖가지 향기 나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유마경사는 화보살(化菩薩)을 향적 부처님께 보내 공양 한 그릇을 얻어 수만 그릇으로 변화·변식(變食)시켜서 대중들에게 공양했다. 이것을 '향반(香飯)' 또는 '향적반(香積飯)'이라고 한다. 향기 나는 공양, 향기 가득한 공양(음식)이라는 뜻이다. 한 그릇의 공양으로 어떻게 수만 명이 모두 공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법으로 공양(법공양)했기 때문이다.

'향적주'라는 말은 추사의 시에도 나온다. 차 만드는 솜씨가 남달랐던 만허 스님이 어느 날 추사 선생에게 차를 보냈는데, 추사 선생은 그 차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편지에 "향적주 가운데 이보다 더 묘미 나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써 보내고 있다.

선종사원에서 쓰는 말은 의미가 심오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원의 주방을 '향적주'라고 하고 그 음식(공양)을 '향반(香飯)'이라고 한 것은 명자 중에서도 명자이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향반'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요, 깨달음을 성취하는 에너지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가슴 충만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고원은 규모로서는 승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짓는다. 주방과 창고를 겸하기 때문인데, 몇 백 명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공양을 장만하자면 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방에서는 대중들을 위한 공양을 만들고 창고에는 쌀이나 식자재 등을 보관한다. 고원의 책임자를 전좌(典座)라 하고, 그 밑에 밥 짓는 소임으로서 공두(供頭)·공양주(供養主) 그리고 반찬 만드는 소임인 채공(菜供) 등이 있다.

고원에는 주방을 지켜주는 신장(神將)으로 위타천신(사천왕의 부하신)을 모신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을 모신다. 중국 사찰은 고원 외에도 신장으로 위타천신을 많이 모신다. 심지어는 사천왕문에도 한 가운데 위타천을 모시는데, 이것은 당나라 때 위타천신이 도선율사에게 귀의한 이후 모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선종이 한 때 율종사원에 의탁해 있었던 영향 때문이다. 향적당·향적실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쓰는 곳이 꽤 많다. 백양사와 금산사 공양처의 이름이 향적당이고, 계룡산 동화사는 향적실이다. 또 향적당을 오관료(五觀寮)라고 하는데, 공양할 때 오관계를 외우기 때문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청나라 소주에 살았던 심복의 자서전 <부생유기>엔 "원각사에 갔더니 가운데는 불전이 있고 위에는 방장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주방인 향적주가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혜쌍수(定慧雙修) 정(定)은 선정으로서 정신 통일, 혜(慧)는 지혜.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는다는 말로서 특히 고려시대 보조국사(1158-1210)가 강조했던 수행법이다. 참선만 하고 지혜를 닦지(배우지) 않으면 사마(邪魔)를 분별하기 어렵고, 가는 방향과 목표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지혜만 닦으면 실천수행이 결여된다. 선정으로 번뇌의 장애(煩惱障)를 치유하고, 지혜로 분별심의 장애(所知障)를 치유한다. 따라서 정혜쌍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선불교의 수행철학도 정혜쌍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당은 정법의 안목과 지혜 정립시키는 공간

약산 선사 “법당 무너지고 있다” 외치고 입적

의 행위를 흉내 내고 있는 격이니, 결국 반쪽 수행, 미완의 수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7당가람의 구성에서 보면 법당(설법당)은 불전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다. 송대에 이르러 선불교와 국가,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가 확대되면서 불전의 역할이 법당을 앞지르게 되었지만, 본래 선종가람에서는 불전보다는 법당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엔 선당이 있다. 이 두 당우는 선정과 지혜의 조화를 통해서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

법당의 전신은 강당이다. 여타 종파에서는 '강당'이라고 불렀는데, 선불교에서는 '법당'이라고 개칭한 것이다. 강당이나 법당이나 그게 그건데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나 명칭은 한 사물의 성격과 역할·기능을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강당'이라고 하면 교학적인 이미지가 풍기지만, '법당'이라고 하면 정법을 설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선적(禪的)인 이미지가 풍긴다. 선불교는 이와 같이 당우의 명칭에서부터 그 지향하는 바를 확연히 드러냈는데 그것은 기존의 불교와는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법당의 규모는 크다. 남송 당시 천동사와 영은사 법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불전과 같다. 그리고 5산 가운데 가장 컸던 경산사는 법당이 중각(重閣, 2층)이었는데, 이것은 붓다 당시에 있었던 중각강당(重閣講堂)을 모방한 것이다. 이후에는 대부분

설진문(眞說眞聞)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설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설법'이요, 진정한 들음'이라는 말인데, 매우 역설적이다. 법문을 했다는 의식도, 그리고 들었다는 의식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공(空)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적을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 비유한 선화(禪話)가 있다. 당 중기 백장선사(720-814)와 비슷한 시기에 약산유엄(藥山惟嚴, 751-834)선사가 있었다. 그는 17세에 출가하여 당시 중국선의 양대 산맥인 석두회전과 마조선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대오(大悟)한 선승이다. 당시 84세로서 곧 입적을 눈앞에 두고 있던 유엄선사가 어느 날 큰 목소리로 대중들을 향하여 외쳤다.

“저기,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法堂倒).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法堂倒)!”

선당에서 좌선하고 있던 대중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앞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도나도 법당을 받칠 기둥을 가지고 달려왔다. 이 때 약산선사가 손을 들고 대중들을 향하여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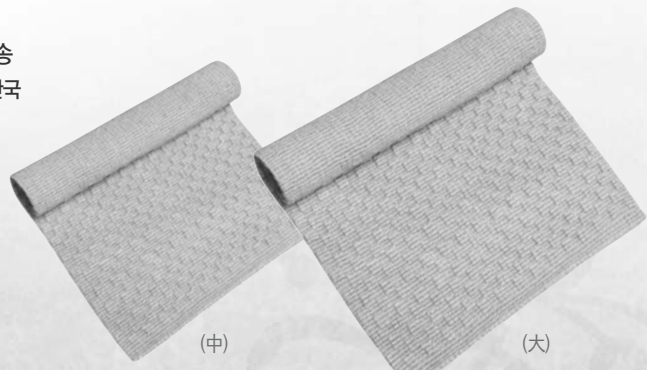
“그대들은 나의 뜻을 모르고 있구나.”

말을 마치고는 이내 입적했다고 한다. <전등록> 14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약산 유엄선사가 '저기, 법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외친 그 법당은 목조로 세워져 있는 법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법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명석 카페트

- ◆제품 무료배송
- ◆제조·원산지: 한국



- 삼베 매트 (대) 가로 180 x 세로 70 x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중) 가로 75 x 세로 50 x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용도: 욕조, 욕기, 매트, 스트레칭, 명상수련, 환풍,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사용 조판에는 석유 염색가 날 수 있으나 특유의 염색으로 1주일 뒤면 염색이 사라집니다.

- 삼베 명석 카페트
- ◆크기: 가로 280 x 세로 180 x 두께 약 1cm
-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330,000원

- 삼베의 가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분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천지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외외선 흡수 기능, 열, 알카리, 김이론의 비투과성



귀문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